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1. 광릉. 겨울 낮

아무도 없는 광릉. 정자각이 보인다.
정자각을 지나면 저만치 키 높은 소나무들이 내려다보는 곳에
누런 겨울 잔디로 덮인 왕릉과 십이지신이 새겨진 난간석 등이 보인다.
햇살이 좋아서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왕릉 뒤로 솟아 있는 소나무들 사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
작고 하얀 나비다. 나풀나풀.
겨울 잔디 색깔과 나비의 선명한 하얀색이 뚜렷이 대비되어 판타지 같다.
나비가 난간석들 사이를 천천히 날아다닌다. 꼭 어딘가 기웃기웃 하는 아이 같다.
그러다 한 난간석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한 참 동안 날개를 움지락움지락 거린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위로

타이틀 "나비의 겨울"

(F.O)

암전 상태에서

<자막>

단종 원년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2년 후, 단종 3년에 왕이 된다.

그러나 그 이듬해 6월 상왕으로 물러 난 단종을 복위 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난다.

소위 사육신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등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계유정난 : 수양대군이 살생부를 만들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2. 근빈전, 밤

(F.I)

세조가 근빈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에 분노인지 욕정인지 모를 것이 가득하다.
근빈은 무표정하다. 세조 근빈의 웃고름으로 손을 가져간다.
근빈 가만있다.

#3. 의금부, 저녁

비라도 내릴 듯 어두운 오후의 하늘이 보이면,
이어 무기고에서 무기를 받아 드는 병사들의 손,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의 수많은 발이 보인다. 요란한 발소리.
모두들 어디론가 다급하게 달려간다.
마당 청소를 하고 오가던 노비들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본다.

#4. 근빈전, 밤

세조 근빈을 거칠게 안는다.
세조의 어깨에 걸린 근빈의 얼굴 보이면 여전히 무표정하다.
세조 근빈을 눕힌다

#5. 성삼문 집 마당. 밤

햇불을 든 관군이 성삼문의 집 마당으로 뛰어 들어온다.

금군대장 : 역적들이다. 성삼문과 성승을 끌어내라.

집안 순식간에 축대밭이 되고 성삼문의 가족들이 울부짖는다.
그 중 사내 하나가 거칠게 저항한다.
관군들에 의해 사내는 구석에 나자빠진다. 맹년이다.
성삼문 자신을 잡고 있던 군사의 손을 뿌리 치고 맹년에게 달려간다.

성삼문 : 살아야한다.

맹년 : (울컥)아버지

군사들 성삼문을 끌고 가고 울부짖는 맹년.

#6. 근빈전 안팎, 밤

문풍지에 세조가 근빈의 위에서 숨을 헐떡이는 그림자 보인다.
카메라 누워있는 근빈의 얼굴 비추면,
모로한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다.

#7. 박팽년의 집 앞, 밤

끌려가는 박팽년과 박중립. 울부짖는 가족들. 졸도하는 박중립의 처.

#8. 근빈전, 밤

문풍지에 비치는 그림자.
근빈은 얼굴을 모로한 채 그대로 누워있고, 세조는 앉아 있는 듯하다.
카메라 방안을 비추면 근빈의 얼굴에 눈물길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세조의 얼굴 비추면 분노와 모멸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9. 이개, 하위지 등의 집(몽타주 느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군사들과 끌려가는 사람들. 이개, 하위지, 유옹부 등

#10. 추국장, 밤.

추국장 전경보이면 박팽년과 성삼문을 위시로 한 십 수 명 포박되어
끓어 앉아 있고 군사들이 도열해 있다. 세조는 상좌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고
세조 옆으로 신하들이 또한 줄 지어 서있다.
군사들이 들고 있는 횃불이 바람에 사납게 펄럭여서
금세라도 포박된 자들을 집어삼킬 것 같다.

세조 : (분을 누르는) 김질이 이미 모두 실토했다... 왜 그랬느냐?

박중립 :

세조 : (버럭)왜 그랬냐고 물었다.

박중립 :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나 하려고 이리 다들 잡아 들였소?....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나리!

나리라는 말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술렁인다.

정인지 : 저런 쳐 죽일 놈! 전하...

세조 : 나리...나리...('나리'라는 말이 분하지만 꼭 누르고 차분한 어조로, 박팽년을 보고)
기억하는가? 네 누이동생이 내 품에 있다.

네가 역적이 되면, 네 누이동생 또한 역적이 된다!

역적의 친족이 어찌된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박팽년 : (세조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꼬는) 혈육의 목숨이 무에 그리 중요하오?

나리께서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아우의 목을 치고 조카를 내치지 않았소이까?

세조 박팽년을 노려보다가 성삼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성삼문 : (갈등하는 그러나 내뱉는)죽이시오!...

끌려온 자들 모두 : 죽이시오!!!

신하들 제각각 분노한 듯한 말들(이런 참담한 일이 정도 내뱉는다) 하는데,
그때 내관 하나 급히 들어오면.

정인지 :(급한 전갈을 받고) 전하. 역적 유성원이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였다 하옵니다.

신하들 웅성 웅성.

세조: 이.....나를 왕으로 받드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냐?

(눈에 불이 이는)그럼....죽어라! 그 뜻이, 고매하구나.

#11. 저자거리 일각, 밤

장대에 걸려 있는 목 5개. 그 아래 서 있는 사내, 맹년이다.

부감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오랫동안 보여 진다.

(F.O)

#12. 저자거리 주막, 낮

(F.I)

평상에 펼쳐진 상이 곳곳에 있고 삼삼오오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하고 있다.

삿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혼자 앉아 있다.

화면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사내, 맹년이다.

남자1 : 그게 정말이여?

남자 2 : 아~글쎄. 그랬다는겨~ 박 대감하고 성 대감이 주축이 돼서
상왕을 복위 시키려다가, 일이 틀어졌다는 겨여.

남자 1 : 허허. 이제 그럼 근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비와 오라비가 모두 역적으로 몰렸으니, 기냥 죽는 거 아녀?

남자 2 : 게야 모를 일이지. 박대감하고 성대감이야 기왕 죽은 목숨이지만,
아 임금이 근빈을 보는 마음이 지극~~~하다던디(말 끝내고 혼자 킁킁거리는데)

남자 1 : 뭐여 왜 갑자기 웃는겨?

남자 2 : 몰라서 그러? 아~ 임금도 사낸디, 사내가 기집을 좋아하면 뭐것어 킁킁
그나저나 그 중전마마는 밤마다 옆구리 좀 시리시것구먼.

남자 1: 이런 미친놈 ㅋㅋ

카메라 옆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남자 1과 2가 엉뚱한 상상을 하며 킁킁거리는데 것을 듣고 있던 맹년,
입술을 앙 물고 말없이 술을 벌컥 들이킨다. 남자들 사내를 돌아본다.

#13. 사정전, 낮

세조 어좌에 앉아 있고 전하들 쪽 앉아 있다.

정인지 : 전하. 근빈은 역적의 딸입니다.

근빈을 폐하고 사사하라는 상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세조 : (그냥 듣고 있는)

한명회 :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와 모반조를 살펴보면, ‘무릇 모반과 대역은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다 능지처사해야 함은
물론, 그 아비와 아들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 처첩·조손·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고,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한다 하였습니다. 또..

세조 : 역적들은 이미 처단하지 않았는가.

정인지 : 전하. 하오나.....근빈은.....

세조 : (보는)

정인지: 역적 박팽년과 박중림의 딸이옵니다.

속히 이를 법대로 처치하여 일국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세조 : 오늘은 그만하라.

신하들: 전하...

세조 : (버럭) 그만하라지 않았는가?

#14. 사정전 앞, 낮

퇴궐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나오는 신하들.

정인지 : 허 그 참. 주상께서 대체 왜 저렇게 고심을 하시는겐지

한명회 : 그야...어찌됐던 품에 있던 여인 아니요?

어느 사내가 제가 품었던 여인을 그리 쉽게 내치겠소?

정인지 : 아 그러자고 다 된 일에 흠을 낸단 말ियो? 에이

한명회 : 꿈.....

#15. 사정전, 저녁

세조의 얼굴 보이면, 신하들이 빠져나간 곳에 혼자 남아 있다.

생각이 깊어지는 얼굴이다.

#16. 근빈전, 밤

박상궁 근빈 앞에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근빈 박상궁에게서 고개를 반쯤 돌리고 앉아있다.

박상궁 : 마마, 주상전하를 찾아 뵈야 하옵니다.

근빈 :그리해야 합니까?

박상궁 : 마마....

근빈 : 그 분도 화를 입으셨겠습니까...

박상궁 :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마마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세조(E) : 아비와 오라비의 목숨만큼 중한 사내인가?

E) 마마, 주상전하 드십니다.

세조 들어서는데, 근빈 약간 당황하여 박상궁 보면

박상궁 : (당혹스런 표정) 주상전하께서는 오늘 밤 중궁전으로 드신다고....

박상궁 나가면 근빈 일어나 인사하고 세조 근빈을 바라본다. 근빈 고개를 숙인다.

#17. 근빈전, 밤

술상 놓여 있고, 세조와 근빈 앉아 있다.

세조 : 니 아버와 오라비가 죽었다.

근빈 :

세조 : 상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모두, 너를 죽이라는 말이다.

근빈 :

세조 : (버럭) 말을 해라! 죽고 싶으냐?

너도 내가 조카를 내치고 왕이 된 자라서 아니 된다는 것이냐?

근빈 : (보다가)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다만 제 아버와 오라비의 목이 저자에 걸렸다는 것만 압니다.

세조 그 말에 화가 치민다. 들고 있던 술잔을 집어 던진다.

굉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는 잔. 근빈 움찔한다.

세조 : 그 자도 죽었다. 모르느냐?

근빈 :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죽었다는 말에 흠칫한다.)

세조 : 이.....말을 해라. (버럭)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을 하란 말이다.

근빈 : (무기력한)어찌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이미, 주상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몸입니다.....

무엇을 어찌 하란 말입니까?

세조 : 그러니, 살려달라고 말을 하란 말이다.

그리고 네 속에, 그 자가 있던 그 자리에 나를 품으란 말이다.

근빈 :

#18. 대전 앞 마당, 낮

정인지, 한명회 대전 앞으로 걸어온다.

대전에 들어선다.

#19. 대전 안팎, 낮

대전 안, 세조 앉아 있다.

상선내관 : (E) 전하, 정인지 대감과 한명회 대감 입시이옵니다.

세조 :.....오늘은 그냥 가라 이르라.

상선내관 : 오늘은 그냥 가라하십니다.

정인지, 한명회 대전 밖에 그대로 선 채로

한명회 : 음...어찌 저러시는지..

정인지 :

#20. 대전, 낮

세조와 정희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정희 :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조 : (귀찮은)뭘 말이요?

정희 : 전하..

세조 : 죽겠다는 자들을 모두 죽였으니 된 것 아니오.

정희 : 하오면 근빈도 죽이실 겁니까?

세조 : 죽이고 싶소?

정희 :그리하시면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하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만 바랍니다....

세조 :(보는)

정희 : 허나 저는 자꾸 돌아가신 어마마마 생각이 납니다.

어마마마의 아버님, 심온 대감의 일을 아시지요?

태종대왕께서 심온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돌아가시게 하셨을 때,

선대왕께서 무력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마마마께서는 화를 피하셨지만,

기어이 그 일이 어마마마께 평생의 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대왕께서도 끝끝내 그것을 미안해 하셨던 것을 주상께서도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세조 : 어마마마께서는,

정희 : (단호한)어마마마께서는,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세조 :

#21. 대전, 밤

세조 상념에 빠져있다. 불쑥 생각난 듯 옆에 있는 껌작 같은 곳에서 뭔가를 꺼낸다.

술대(거문고를 탈 때 쓰는 도구)다.

선물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듯 보이는 물건이다.

카메라 멀어지며 그것을 보고 있는 세조의 모습 보인다.

#22. 사정전, 낮

세조 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 도열해 있다.

세조 : 다들 알 것 이다.

신하들 : ?

세조 : 지난 날 과인의 외조부께서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다.

신하들 : 전하...

세조 : 그때 태종대왕께서 어마마마를 책망치 않으셨다.

태종대왕께서 다만 외척을 근심하셨던 것이다.

당시 영상이셨던 외조부가 혹시 선대왕께 누가 될까봐 그리셨하셨다는 것 또한
경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정인지 : (세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 채고) 하오나 전하....

세조 : (말 자르며, 단호한) 이 시간 이 후로, 또 다시 근빈의 일을 들추는 자는 돌아가신
과인의 어마마마께 불경한 죄를 물을 것이다.

신하들 다들 불만스러운 표정이나 감히 나서지는 못한다.

#23. 근빈전 앞 마당, 낮

근빈전으로 달려가는 궁녀 한 명이 보인다.

원가 전해들은 박상궁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24. 근빈전, 낮

박상궁 : (기쁜)마마

근빈 : 무슨 일인데 그리 웃으십니까?

박상궁 : 마마, 주상께서 대신들에게 다시는 마마의 일을 거론치 말라고 명하셨다 하옵니다.

근빈 :

박상궁 : (기쁜)마마

근빈 :

#25. 색주가 거리, 밤

유곽들이 즐지어 있는 거리다. 휘황찬란 시끌벅적하다.

무리지어 가는 사내들과 길에 나와서 그 사내들을 잡아끄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난삽하게 섞인다.

그 유곽골목 사이를 두리번거리면서 때로는 아가씨들에게 농지거리를 던지기도 하며 한 사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서자 문을 이리저리 살핀다. 여인 하나가 나오더니 잡아끈다.

여인 : (유혹)오라버니! 뭘 그리 기웃그리슈? 그냥 들어오시면 될 걸(눈 웃음 흐르는)

칠삼 : 아 가만 있어봐 이년아. 예가 그 금월관이 맞지?

여인 : 예 맞습죠? (뽀로통해져서)오라버니도 금홍이 찾아왔수?

칠삼 : (그냥 무시하고)맞구만.

칠삼 쪽 들어간다. 여자 병쳐서 그대로 선 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칠삼의 뒷모습을 본다.

#26. 유곽 방 문 앞, 방안, 밤

문 앞에 서면 그림자가 진다. 방안이 시끌벅적하다.

여자들의 콧소리가 방밖에까지 흘러나온다.

칠삼 : 접니다요.

E (취기가 있는)들어오게.

칠삼 들어오면 맹년의 눈이 번쩍하고 빛난다.

기생들을 양 옆에 끼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앉는다.

여태 기생들을 끼고 놀던 사내는 간 데 없고 진지한 얼굴이다.

칠삼이 자리에 앉아 헤헤하며 옆에 있던 기생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면

고갯짓을 해서 기생들을 내보낸다. 기생들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나간다.

아쉬운 칠삼

맹년 : (술을 한 잔 털어 넣고)구했나?

칠삼 : (밖으로 나간 기생들이 아쉬운) 아 그 양반 참 성질 한 번 급하구만.

그야 뭐 구했으니 이리 온 거 아니유!

(특 내뱉는) 근데 대체 뭐에 쓰실라 그러우?

맹년 : (보는)

칠삼 : (눈빛이 따가운) 흠 저야 뭐 돈만 주시면야 그 우리 집에 있는 기집이랑 새끼

빼고는 다 갖다 드리긴 합니다만....

맹년 : (말 자르는) 죽일걸세

칠삼 : (뭔가 알겠다는 듯 비장한 얼굴로)음..

맹년 : 왕을

칠삼 : 예?

맹년 : (보는)

칠삼 : (접먹은)다른 사람 찾아보슈.(급히 나가려는)

맹년 : 자넨 이미, 이 방에 들어왔어.

내 목이 저자에 걸린다면 자네 목은 그 옆에 있을 걸세.

칠삼 : (다시 후다닥 앉으며)아 이 양반아~ 내 내가 뭘 했다고? 이 양반이

맹년 : (보는)

칠삼 : 하.....알겠수.

맹년 : (술 마시는)

칠삼 : 허지만 이 일만 끝나면 날 잊으슈! 아주 깨끗이, 말끔히 착~잊으슈.

맹년 : (피식 웃는)

칠삼 : (버럭)아 웃을 일이 아냐! 이 양반아!

맹년 : (손을 내미는)

칠삼 뭔가 하다가 알겠다는 듯 품에서 뭔가 꺼낸다. 작은 복주머니 같은 물건.

칠삼 보다가 복주머니를 열어 손에 조금 털어본다. 하얀 가루다.

맹년 : (쏘아보며) 틀림없지?

칠삼 : (여전히 투명스런)석 달 정도 걸릴 거유.

맹년 : (품에서 돈뭉치를 꺼내 던져주며) 이 일이 새나가면 자네도 성치 못 할거야.

칠삼 : 아 내가 미쳤수? 집구석에 마누라랑 새끼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돼지면 고것들은 어떡하라고

맹년 : 남은 일이나 잘 처리해 주게. 그럼 남은 돈은 그 일이 끝나면 주는 걸로 하지

칠삼 : 췌 알겠수

맹년 : 나가보게

칠삼 : (인사하고 나가는)

칠삼 가지고 왔던 물건을 다시 들고 나가면 아까 문 앞에서 칠삼을 봤던 여인이 다가오고 칠삼 헤벌레해서 여인을 덩석 안는다.

칠삼이 나간 방에 남은 맹년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가루를 뚫어져라 본다.

#27. 경복궁 전경, 밤

경복궁 전경 보이면 어둠 속에서 한쪽으로 주위를 살피며 걸어가는 궁녀 한 명 보인다.

#28. 경복궁 일각, 밤

으스스한 곳. 칠삼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저 쪽에서 궁녀가 주위를 살피며 사내가 있는 쪽으로 급히 걸어온다.

칠삼 : (약간 역정내며)왜 이리 늦었어?

궁녀 : 수라간 일이 그리 한가한 줄 아시오?

칠삼 : 에이 고년 참 주둥이 한 번(투덜)

궁녀 : (불안한)빨리 그거나 주세요.

칠삼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궁녀에게 준다. 궁녀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고
얼른 받아 품에 넣은 후 종종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궁녀가 가고 나면 칠삼도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29. 산 길, 밤

밤 길, 젊은 여인이 장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다.

앞에 등불을 든 중년의 여인 하나가 길을 안내하듯 같이 걷고 있다.

박상궁과 근빈이다. 카메라 근빈 얼굴 비춘다.

#30. 근빈전, 낮(회상)

근빈 앉아 있는데, 박상궁 급히 들어온다. 앉자마자 품속에서 서찰 같은 것을 꺼낸다.

박상궁 : 조금 전에 궐문의 청지기로 있는 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빈 : ? (꺼내보는)

근빈 : (놀라고 약간은 달뜬) 그 분이 살아계세요.

박상궁 : 마마..(걱정스런) 지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E) 마마

#31. 산길, 밤

(E)박상궁 : 마마

다시 카메라 근빈의 얼굴 비추면 생각에서 깨어나는

박상궁 : (근빈 보며)다 온 듯합니다.

근빈과 박상궁 잠시 서서 보면 앞에 폐가처럼 보이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인다.

근빈 : 어서 가지요.

근빈과 박상궁 걸음을 재촉한다.

#32. 대전, 밤

세조가 잠들어 있다.

#33. 폐가 안, 밤

박상궁과 근빈 들어오면 젊은 사내 한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선다. 맹년이다.
박 상궁 주위를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 근빈 쓰러지듯 앉는다.

근빈 : (보다가)돌아가셨다..... 생각했습니다.

맹년 : 아버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근빈 : (?해서 보는)

맹년 : 금군 중에 하나가 아버님 생전에 크게 은혜를 입었다 하더이다.....
시체더미를 덮고 살았습니다.

근빈 :

맹년 : 며칠 동안 몸에서 피 냄새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빈 : 아버님을 보셨습니까?

맹년 : (괴로운).....

근빈 : (불안하게 보는)

맹년 :보았습니다..... 저자에(울컥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돋우고 오히려 더욱 또박또박)
두 분의 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Ins #11에 나왔던 장대에 걸린 목

근빈 : 시신은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까?

맹년 : (침통)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울컥)역적의 시신이라 하여

근빈 : (소리는 삼키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맹년 :

맹년 : (목소리 다지고 핏발 선 눈)하여, 남자..

맹년 굳은 표정으로 근빈 보고 근빈도 맹년 보는

#34. 대전, 밤(세조 꿈속)

Ins 어둠 속에 서 있는 여인. 왕비의 옷을 입고 있다.
어두운데다 고개까지 숙이고 있어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어렴풋이 보이는 모습 위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린다. 여인이 고개를 들려는 순간.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는 세조의 얼굴.
세조 급히 일어나 앉는다. 얼굴이 온통 땀에 젖어 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막혔던 숨을 내 쉬듯 숨을 몰아쉬다.

#35. 경복궁 일각, 낮

세조가 산책을 하고 있다.
어젯밤 꿈자리가 영 뒤숭숭했던 탓인가, 기분이 영 좋지 않다.

#36. 연못가 일각, 낮

근빈 박상궁과 절어가고 있다. 저만치 연못가를 지나치고 있는 세조가 보인다. 근빈 잠시 서서 본다. 뭔가 생각한 듯 그쪽으로 간다.

근빈 : 전하.

세조 : 근빈?

근빈 : 산보 중이셨습니까?

세조 : 어인일이요?

근빈 : (다소 어색한)...저 또한 햇살이 좋다하여 산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세조 : 그래요?

근빈 : (용기내는)신첩의 처소에 잠시 드실 수 있으십니까?

다과상을 보라 이르겠습니다.

세조 : (의아해서 보는)

근빈 : (고개를 숙인다.)

세조 : (내심 좋은)그리합시다!

#37. 근빈전, 낮

차를 따르고 있는 여인의 고운 손이 보인다. 근빈이다.
세조와 근빈 앉아 있고 다과상이 놓여있다.

세조 웃고 있고, 근빈 다소곳이 앉아 있다.

세조 : 무슨 청이라도 있는게요?

근빈 :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침 박상궁이 내은 차가 향이 좋아서,
전하께 드리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세조 : (고운 근빈이 더 고와 보이고 꿈 때문에 잠시 우울했던 기분이
금세 좋아지는 듯하다.)

그러한가? 하하! 그래! 차가 향이 아주 좋소.

근빈 : 예, 전하.

세조 웃고 있고, 근빈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깊이 웅시한다.

#38. 중궁전, 낮

정희 앉아서 서책을 보고 있다. 김상궁 다가와 앉는다.

김상궁 : 마마, 주상전하께서 지금 근빈전에 드셨다 하옵니다.

정희 : 무슨 말이냐?

김상궁 : 그것이, 산보를 하시던 중에 근빈마마를 만나셨는데,
근빈마마께서 청하셨다 하옵니다.

정희 : (무심한 듯)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근빈은 주상전하를 모시는 여인이다.

그런 근빈이 주상전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에 그리 큰일이라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겐가?

김상궁 : (약간 당황한)마마..

김상궁 나가면 정희 다시 서책을 보지만 잠시 후
서책에서 잠시 눈을 떼고 김상궁이 나간 쪽을 바라본다.

#39. 근빈전, 밤

근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Ins. 폐가, 밤

근빈 : (굳은)무슨 말씀이십니까?

맹년 : 죽일 것입니다.

근빈 : 죽이다니요?

맹년 : 이미 수라간 나인과 상약 내관을 매수했고,
아직 금성대군과 상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일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빈 : 하오나

맹년 : 낭자께서는 왕의 마음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근빈의 얼굴 보인다. 근빈 낮은 한 숨 내어 쉰다.

(E) 박상궁 : 마마, 주상전하께서 드십니다.

근빈 흠칫하지만 이내 일어나 곱게 인사하고,
세조 호뭇한 얼굴로 들어온다.

#40. 후원 활터, 낮

활터 전경이 보이고 세조 활을 쏘고 있다.
내관들과 호위무사들이 그 뒤에서 그런 세조를 보고 있다.
세조 쏘는 대로 맹수처럼 생긴 파녁에 명중한다.

세조 : 조내관

조내관 : 예. 전하.

세조 : (기분좋은) 너는 사모하는 마음을 아는가?

조내관 : (당황한, 잠시생각하다) 신, 내시가 되기 위하여 소한 시험을 볼 때,
이미 사내가 되기를 포기하고 주상전하께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세조 : (내관을 잠시 보다) 후 다음 생에는 충성을 포기하고, 사내가 되라.

조내관 : (뉘라 답할지 난감한)

세조 : (빙긔 웃는)좋은 것이다! 사내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란 말이다!

조내관 : 예, 전하

세조 시위를 힘껏 당기고 쏜다. 또 명중한다.

#41. 수라간, 저녁

수라상준비가 거의 끝나고 나인들이 수라간을 빠져 나간다.

나인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은 궁녀 한 명이 보인다. 경직된 얼굴.
#28에서 칠삼을 만났던 궁녀다.
수라상 앞에 선 그녀의 등이 보인다.

#42. 대전, 밤

수라상을 들고 들어오는 나인들.
세조 먹는다. 세조가 기분 좋게 먹는 모습 부감으로 오래 보여진다.

#43. 대전, 낮

세조 웃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고 정희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

세조 : 사람은 변하더이다.

정희 : (보는)

세조 : 근빈이 내게 차를 대접했어요.

정희 : 전하의 빈첩입니다. 무에 그리 큰일인지요.

세조 : 큰일이지. 큰일이야.

몸을 가져다 놓는다고 마음까지 가져올 수는 없는 법 아니요?

그간 내게 웃는 모습 한 번도 제대로 보인 적이 없었던 근빈이었소.

정희 :

세조 : (손 덩석 잡으며) 모두 중전의 넓은 마음 덕분이오.

중전께서는 어찌된 것이 투기 한 번 하지 않으셨으니. 하하! 하하!

정희 :투기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세조 : (어여쁜) 역시 중전이요. 근데.... 세자에게 병색이 있다는 소릴 들었소?

정희 : 신열이 있다 하온데,

어의들이 아직 좀 더 증세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조 : 거 참, 장차 보위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터인데,

그리 병약해서야.

중전께서 잘 보살펴 주시구려.

말을 끝낸 세조는 여전히 그저 기분이 좋은 얼굴이다.

정희가 그런 세조를 본다. 웃고 있지만 웃음 끝이 씩씩해 보인다.

#44. 근빈전, 밤

박상궁에게 서찰을 건네주는 근빈.

#45. 주막 방, 밤

맹년 서찰을 촛불에 불태운다.

맹년 : (혼잣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46. 중궁전, 밤

김상궁 : 마마.

정희 : 또 무언가?

김상궁 : 근자들이 주상전하께서 근빈전 출입이 잦으십니다. 무슨 방도를

정희 : 그만두게.

김상궁 : 하오나 마마, 세자저하께 병환이 있사온데도 전하께서는...

정희 : (버럭)그만하라지 았았는가...(화를 내고 민망한) 나가보게

#47. 몽타주

- 1) 세조 활기차게 사냥을 다니는 모습.
- 2) 연못가에 앉아 연못을 보고 있는 근빈, 웃으며 다가오는 세조.
- 3) 혼자 교태전에 앉아 있는 정희.
- 4) 누군가와 만나 은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맹년

#48. 경복궁 일각 산책로 낮, 밤(세조의 꿈 속)

세조 근빈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세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 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숲 속으로 변한다.

근빈 쪽을 보면 근빈은 간 데 없고 한 여인이 서 있다. #34.에 나왔던 그 여인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면 문종비 현덕왕후다.

파리하고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이다.

그녀는 입을 오물거리고 있지만 그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세조는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한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현덕왕후는 손만 세조 쪽으로 향한 채 뭔가 말을 하려한다.

현덕왕후 : (작고 힘없는 목소리) 내 아들이,,

현덕왕후의 표정이 순식간에 광기에 휩싸인다.
세조 일어나서 걸으려다 놀라서 다시 넘어진다.

현덕왕후 : (히스테릭)아~~~~~ (내 아들을)살려줘, 살려줘.(울음섞인)제발.....

현덕왕후 슬픔과 노여움의 표정이 교차한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 순간 현덕왕후의 표정이 노여움으로 일그러지며 순식간에 세조에게 다가온다.

#49. 세조의 침전, 새벽

세조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잠에서 깬다.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다.
얼굴도 땀으로 번들거린다.
세조 인상을 쓰고 팔을 쓰다듬다가 팔을 건어보면 울긋불긋한 반점 같은 것이 보인다.
그 때 정희가 세조의 기척에 일어난다. 세조 급히 팔을 내리는 데,
정희 잠깐이지만 세조의 팔에 있는 염증 같은 것을 본다.
그리고 뭔가 말하려는데, 밖에서 상선 내관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약간 떨고 있는 듯하다.

상선 내관 : 전하, 세자 저하께서(말을 잊지 못한다.)

세조와 정희 소리가 나는 문 쪽을 쳐다본다.

#50. 동궁전, 아침

김상궁이 앞장서서 세조와 정희 들어가면 세자 정신을 잃고 누워있고
그 옆에 왕세자비 인수가 세자 장의 손을 잡고 앉아서 흐느끼고 있다.
내의원들 몸 둘 바를 몰라 한다.
곧 세조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정희 곧바로 세자의 얼굴을 보고 주저앉는다.

세조 : (날카로운 표정 세자의 얼굴을 보며) 어찌된 일인가?

내의원들 당황하여 머뭇머뭇 거린다.

세조 : 말해라.

어의 :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직 저희들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나이다.(조아린다.)

정희 : (카랑 카랑)그게 무슨 소린가?

얼마 전 까지도 그저 신열이 있다던 아이가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데,
내의원이라는 자들이 그 원인을 모른다니

의원들 :.....

세조 : (넋이 나간 표정이다.)

#51. 근빈전, 낮

세조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고 그 앞에 근빈 앉아서 차를 따르고 있다.

세조 : 세자의 병색이 심상치 않다.

헌데 내의원이라는 자들이 그저 모르겠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답답하다.

근빈 :

세조 : (혼잣말처럼)근자에 꿈자리도 내내 좋지 않아.....

Ins #48 현덕왕후의 일그러진 얼굴

근빈 : (보는)

세조 : 아니다.(피식)국왕이라는 자가 한낱 꿈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후

근빈 : 곧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세조 : (설핏 웃는)네가 그리 말해주니 듣기에 좋다.

근빈 : 망극하옵니다.

세조 : (보는, 근빈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

이 께에 있는 자들은 무에 그리 매일 송구하고 망극한 것이냐? 하하

근빈 : 송구하옵니다.

세조 : 하하~하하하하

#52. 근빈전 앞 마당. 낮

(E) 세조의 큰 웃음소리, 하하~하하하하

근빈과 이야기나 하고자 왔던 정희, 밖에까지 흘러나오는 세조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옆에 서 있던 김상궁과 나인들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희 무심한 듯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정희 : (굳은)가세.

김상궁 : 예, 마마..

#53. 교태전, 낮

김상궁 : 마마, 세자저하의 병환이 깊사온데, 주상전하께서는 저리.

정희 :

김상궁 :

정희 : 주상께서도 답답하시니 그러시지 않으시겠는가.

김상궁 : 하오나

정희 : 자네의 말은 알겠네.

그때 밖이 시끌시끌하다.

정희 김상궁 보는데,

(E) 마마 정상궁이옵니다.

정희 : 정상궁? 들어오거라.

정상궁 : (다급하게)마마 역모가 발각되었다 하옵니다.

정희 : 뭐라?

#54. 사정전, 낮

세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신하들 모두 분개한 얼굴로 말하고 있다.

정인지 : 전하, 안동의 관노 이동이 이유의 처소에서 격문을 훔쳐

이를 고변하였사옵니다.

격문은 저들이 순흥부사 이보흠과 작당하여 상왕을 순흥으로 이주 시키고 영남을
기반으로 하여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이옵니다.

<자막> 이유 - 금성대군의 이름

세조 :

신숙주 : 지난해 이개 등이 노산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거사하려 하였는데,

이제 이유도 또한 노산군을 끼고 난역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노산군도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조 : (굳은, 한명회를 보고) 도승지가 직접 이 일과 관련된 증좌를 따져 보라.

또 순흥에 소윤 윤감을, 예천에 우보덕 김지경을, 안동에 진무 권감을
보낼 것이니 그들에게 관련된 자들을 국문케 하라.

...이 일은 국문이 끝난 후 마땅히 상량하고 다시 논할 것이다.

정인지 : 유는 지난 날 서울에 있으면서 군사를 모아 모역한 것으로도

그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이제 거둬 대역(大逆)을 범하여 그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하실 바가 아닐 것입니다.

세조 : (버럭) 하여, 국문을 하고 알아보라 하지 않았는가!

신숙주 : 이와 같은 대역은 상량하실 것도 못됩니다. 전하

신하들 : 전하.

세조 :

#55. 대전, 낮

양녕대군이 세조를 독대하고 있다.

양녕대군 : 전하,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조 : 숙부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노산군과 유는 제게는 물론,
숙부님께도 골육지친이 아닙니까?

양녕대군 : 신 또한 전하의 어진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소위 골육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의로써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조 : 알겠습니다. 숙부님....오늘은 그만 돌아가보시지요.

양녕대군 :

#56. 근빈전, 밤

세조와 근빈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술상이 놓여 있다.

세조 얼굴에 취기가 조금 보인다.

세조 : 또 피를 봐야 할 듯싶다.

근빈 :

세조 : 이야기를 들었느냐?

근빈 : 박상궁이 전해주었습니다.

세조 : 어찌해야 되겠느냐?

근빈 : 아녀자가 어찌 조정의 일을 논하겠습니까?

세조 : (설핏 웃는) 헌데, 판노의 충심이 대단하지 않느냐?

성은이 지방의 판노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내 잊고 있었구나. 하하(조소)

근빈 : (보면)

세조 : 관청에 묶여 평생을 살아온 관노다.

나에게 무에 그리 큰 충심이 있어,

목숨을 걸고 대군의 집에까지 들어가 격문을 훔쳐냈겠느냐?

근빈 :

세조 : 저들은.....내가 기어이 내 조카와 아우를 죽여야, 이 궐이 조용해지려나 보다.

근빈 : 전하의 어명 없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세조 : (술 마시고 내려놓으며 씩씩하게 웃는)내 입에서 나온다고 하여, 모두 내 뜻이라더냐?

근빈 :

세조 : 아느냐?....임금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조 말없이 술을 마시고, 근빈 그런 세조를 바라본다.

#57. 동궁전, 밤

정희 누워있는 세자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다.

병색이 더 깊어진 듯한 세자의 모습이 보인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정희의 얼굴에 노기 같은 것이 스쳐간다.

#58. 대전, 밤

정희 굳은 표정이 역력하다. 세조 무심한 얼굴로 앉아있다.

세조 : 대전 출입이 잦으시구려.

정희 : 신첩이 오지 못할 곳에 왔습니까?

세조 : 허. 어찌 말을 그리 받으시오?

정희 : 역적들이 일어나 온 나라가 뒤숭숭한 때이옵니다.

세조 : (귀찮은)그것이 어찌 중전만의 근심이겠소? 나 또한 근심이....

정희 : 어찌 근심은 근빈전에서만 하십니까?

세조 : 허허허(허탈하게 웃는)

정희 : (보는)

세조 : 중전도, 여인이 맞긴 하시구려? 투기를 다하시고.

정희 : (듣기 싫은)세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상의 장자입니다. 장차 보위를 이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입니다.

어찌 그리 무심하실 수 있습니까?

세조 : 허 그 참. 어의를 보내지 않았소. 내의원들이 돌보고 있으니 차도가 있을 것이요.

정희 :전하의 마음도 어의 편에 보내셨는지요?

세조 : (굳은)중전!

#59. 근정전, 낮

굳은 표정의 세조가 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 도열해 있다.
다들 오늘은 결판을 내려는 듯, 다부진 표정을 하고 있다.

정인지 : 전하. 옛말에 사온으로 대의를 멸절하면 대계를 해친다고 하였사옵니다.

세조 :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누가, 죄수인가?

한명회 : 전년의 변란으로써 본다면, 노산군이 죄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가 죄수가 됩니다. 허나 대역이란 수종을 분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숙주 : 전하, 종사의 대계를 유예하여 처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신 생각하건대,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도 주멸하는 법입니다.

아울러 이영 · 이어 · 전 정종·송현수 등의 일당 또한 그 죄가 같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혀 주시옵소서.

세조 : 옛사람의 말에 ‘저들 죄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또 성인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할 것이다.

송현수와 권자진을 교형에 처하되, 이영 · 이어 · 전 정종 등의 일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정인지 : 전하, 그들의 죄가 흉악하나, 결국 일당에 불과하옵니다.

원흉은 이유와 노산군이옵니다.

세조 :

세조 :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써 대체에 누가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여 대의로써 결단한 바, 이유와 노산군을, 사사한다.

대신들 금세 흡족해 하는 표정이 보이고

말을 마친 세조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인다. 이때, 내관 하나 급히 들어온다.

세조 : ?

정인지 : 무슨 일이나?

내관 : 전하...세자저하께서 세자저하께서 방금 승하하셨습니다.

세조 : !

신하들 웅성 웅성

#60. 동궁전, 저녁

세조 급히 동궁전으로 들어가면 이미 울음바다다.
왕세자비 인수가 오열하다가 세조를 보자 엎어진다.
정희가 세자 위에 엎어져 울고 있고 상궁과 내관들도 울고 있다.
어의는 난감한 표정으로 침통하게 서있다.
세조 무릎이 꺾여서 풀썩 주저앉는다.
세조 표정 일그러져서 앉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정희 그런 세조를 원망스런 눈으로 본다.

#61. 근빈전, 저녁

박상궁 : 마마, 세자저하께서 승하하셨다 하옵니다.
근빈 : (놀라는)
근빈 : (마음을 차분히 하며)전하께서는 어찌 하고 계신가?

#62. 경복궁 일각, 밤

땀이 맺힌 세조의 얼굴이 보인다.
썩. 칼소리다. 세조와 무사의 칼이 부딪힌다. 세조 검술 수련을 하고 있다.
무사 하나가 앞에서 세조의 상대가 되어 주고 있다.
그 옆으로 신하 몇 명이 보고 있고 세조의 호위 무사로 보이는 사내와 군사
몇 명이 그 뒤에 서 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세조의 얼굴 위로 #48에서 나왔던 현덕왕후의 목소리가
들린다.

(E)현덕왕후 : (작고 힘없는 목소리) 내 아들이.....

현덕왕후 : (히스테릭)아~~~~~ (내 아들을)살려줘, 살려줘.(울음섞인)제발.....

세조 모두 잊으려는 듯 칼을 크게 휘두르고 상대를 하고 있던 무사가 한 발
물러서며 피한다. 그러나 칼을 다잡고 이내 세조에게 달려든다.
수련이기에 다소 느슨해 보이는 칼싸움이다.
그런데 조금씩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어느새 무사의 눈빛에도 살기가 돈다.
세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사의 칼끝이 매섭다.
정신이 번쩍 든다. 살기가 느껴진다.

점점 격해지는 칼싸움. 격해지는 금속음. 찡찡찡.
그 때 무사의 칼이 세조의 옷소매를 자르고, 툭 떨어진다.
세조 멈칫하고 옆에 있던 신하들도 흠칫한다.
신하들 뛰어 달려하지만 칼끼리 부딪히는 위세에 감히 끼어들지 못한다.
무사 또한 세조를 죽이려고 했지만 막상 왕의 옷소매가 날아가자 멈칫한다.
하지만 이내 다시 달려든다.
잠시 병쳐 있던 세조, 얼굴을 살짝 베이며 가까스로 피한다.
무사가 휘청하는 사이 세조 그대로 무사를 베어버린다.
그제야 군사들 달려온다.
세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무사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획~한 쪽에서 날아오는 수리검.
세조 가까스로 피하고, 옆에 있던 군사 하나가 픽 쓰러진다.
세조 수리검이 날아온 쪽을 쳐다보면,
군사들 달려가지만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순식간에 담을 넘어 사라진다.

호위무사 : 호위무사의 수를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조 :(잠시 생각하다 단호하게) 입을 무겁게 하라. 괜한 말로 궤내에 분란을 만들지 말라.
군사들 : (의아하지만) 예, 전하.

세조 칼을 잡은 손을 쳐다보면, 피부염증이 손등까지 내려와 있다.

#63. 연꽃가, 낮

연꽃이 피어 있는 연꽃가.
하염없이 연꽃만 보고 있는 근빈, 반쯤 낮이 나간 표정이다.
그런 근빈의 얼굴 위로 #52.에서 나왔던 세조의 목소리 들린다.

(E) 세조 : 아느냐? 임금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후후(쓸쓸하게 웃는)

박상궁 : (안타까운)마마, 두 점 쯤 이려고만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

근빈: (연꽃만 보고 있다.)

#64. 절 대응전, 낮

불전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정희의 뒷모습이 보인다.
정희 삼천배라도 드리는 것인지 계속 절을 하고 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정희의 얼굴 보인다.

Ins # 명례궁 일각,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저녁

- 거사계획이 세어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 수양대군(세조)의 모습
 - <자막>계유정난 당일 밤
 - 세조에게 갑주를 주는 정희. 갑주를 받아들고 망설이는 수양
 - 세조에게 갑주를 빼앗아 급히 입히는 정희
 - 숨을 거두고 누워 있는 아들 장의 모습
- 빨리 스쳐지나가는 장면들.

회상에서 갓 정희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떨쳐버리려는 듯,
다시 절을 하고 일어서던 정희가 휘청하자 김상궁이 달려가 정희를 받친다.

김상궁 : 마마. 강녕하셔야합니다.

정희 : 괜찮다....

#65. 교태전, 낮

정희 누워있고 그 옆에 김상궁이 앉아있다.

정희 바로 누워 있다가 모로 눕는다.

김상궁을 등지고 누운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흐른다.

#66. 경복궁 일각, 낮

세조 앉아서 바람을 쏘이고 있다. 쓸쓸해 보인다. 그것을 지나가던 근빈이 본다.

(F.O)

#67. 주막, 밤

(F.I)

마당에 상이 펴져 있고 여기 저기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국밥을 먹고 있다.
그 중 한 상에 있는 사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사내1 : 자네 그 말 들었어. 왕이 상왕을 결국엔 결판냈다는구만

사내2 : (진열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이런 육시탈 놈들.

지 조카를 확 목 따버리고 왕이 되든, 그 뱃속이 뜨시단가?

사내1 : (아는 척) 아 이 사람아. 목을 딴 게 아니라 사약을 내렸는지 않나?

사내2 : 아 이 놈아 그거이

사내1 : (말 자르며)그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야? (혼자 비장한)냉~혹하고 비~정한 세계라고

할 수 있지.(다시 출썩) 아 말이사 바른 말이지,

그 밑에 있는 작자들이 지 뱃대지 채우느라 아귀싸움 하는데 왕이라고 별 수 있어?

사내2 : 아~그러도 어쨌거나 왕이 지 조카랑 동상들을 죽여분거슨 맞잖여~

주모 : (탁배기를 툇 놓으며)하 이 양반들 참 바쁘시네 그려.

입구멍 걱정하기도 바쁜 시상에, 이 나랏일 걱정까지 해여허고

아 거기다 밤마다 안주인 까지 챙기실라든 올때나 바쁠것이어?

사내1,2 : 뭐라고~

주모 : 호호호호호

그 때 칠삼이가 건들거리며 들어오며 땡년을 찾는다. 주모 얼른 칠삼에게 달려가고 칠삼 주모에게 뭔가 말을 하면 주모가 방쪽을 가리킨다.

#68. 주막 방안, 밤

칠삼과 땡년이 술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칠삼 : 그 때 물건을 전해 준 기집 말로는 왕이 별 의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땡년 : 그렇겠지

칠삼 : (불안한)근데 이러다가 진짜 경치는 거 아닙니까?

땡년 : 그러니 내 항시 조심하라 이르지 않는가. (조용히)오래 걸리지 않을 걸세.

칠삼 : 근데, 궁 안에는 그 누가 있는 겁니까?

땡년 : (보는)

칠삼 : 아~그래도 왕을,(목소리를 낮추며) 죽이는 일인데, 원체 쉽지 않소?

땡년 : 네놈에게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느냐?

칠삼 : 아 나리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나리의 동업자 아닙니까? 동업자.

그...뭐시냐 폐륜한 왕을 죽이고 이 나라 종묘사직을 바로 세우는 그....대의...

암튼 뭐 그거 아닙니까요? 제가~

땡년 : (피식 웃는)

칠삼 : (불쑥)혹 사모하는 여인이요?

땡년 : (굳어서 보는)

칠삼 : (쫓아서) 아니 뭐,,그 궁녀가 마마 어찌고 하길래 말입죠..

맹년 :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그런 호사스런 말 따위, 나는 모른다.

칠삼 : 아 그 나리 참,,사모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모~~~ 여기 탁배기나 한 대빱 더 주슈

칠삼 술을 벌컥 마시고 맹년도 조용히 술을 털어 넣는다.

#69. 교태전, 낮

궁녀들이 정희의 머리를 빗겨 넘긴다.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른다. 얼굴에 분을 바른다.

단장을 마치고 명경을 보고 있는 정희의 얼굴.

조금 해쓱해진 것 같지만 기력을 되찾은 듯하다.

정희 명경을 보고 머리를 만지며 마무리 한다.

#70. 대전, 낮

세조 혼자 멍하니 생각에 빠져있다. 병색이 깊어진 것이 보인다.

그 옆에 어의가 앉아 있다. 그때 의녀가 손에 뭔가를 받치고 들어온다.

(E)조내관 : 전하, 탕약을 대령했습니다.

세조 : 들이라.

의녀가 탕약을 들고 오면, 기미상궁이 기미를 본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조가 탕약을 받는다.

세조 탕약을 마시려다 한 번 바라본다.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어의가 옆에서 그런 세조를 보고 있다.

어의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세조가 손을 들어 말을 막는다.

세조 : 증전은 어찌하고 있는가?

김내관 : 그것이, 곡기를 끊고 누워만 계시다가,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 하옵니다.

세조 : 알았다.

세조 탕약을 마신다.

탕약을 마시느라 소매가 흘러내린 세조의 팔뚝에 악화된 피부염이 보인다.

세조 다 마신 탕약 그릇을 다시 한 번 본다.

#71. 대전 마당, 낮

정희가 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72. 대전, 낮

세조 누워있다.

세조 : 이제 그만 나가봐라.

어의와 의녀들 나가려한다.

(E) 내관 : 전하, 중전마마 입시이옵니다.

세조 : (흠칫하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드시라 해라.

정희가 들어온다.

들어와서 어의와 의녀들을 보고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일단 앉는다.

세조 여전히 누워 있고 어의 그 옆에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다.

정희 : (차분히 어의를 보며)어찌 된 겁니까?

어의 : (세조를 한 번 본 후 난감한) 전하께서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정희 : (대전내관을 노려보면)

내관 :

세조 : 별일 아닙니다.

정희 : 별일 아니라니요.

세자가 그리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헌데 또 용체에 이렇게 환후가 있습니다.

정희 말을 마치고 어의를 돌아보면

어의 : 아직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소신이 보기에.....

세조 : (말 자르며)이제 되었다. 나가봐라.

정희 세조를 보면 어의와 의녀들 어찌 할 바를 몰라 조금 당황

세조 : 명을 못 들었느냐?

어의와 의녀들 모두 나간다.

정희 나가는 어의와 의녀들을 보다가

정희 : 어찌 그리하십니까? 신첩이 누구입니까? 중전입니다.
용체에 환후가 있는 것이 언제부터 중전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세조 : 중전
정희 : 대답을 하세요.
세조 : 바깥바람이 쐬고 싶소.
정희 : 전하!
내관 : 전하, 바깥 바람이 차웁니다.
세조 : (버럭, 내관에게) 내가 바람이 쐬고 싶다는 데 웬 말이 그리도 많은 게야?

정희 세조를 본다. 깊게.

#73. 근빈전, 밤

세조 : (웃는)아프다. 들었느냐?

근빈의 눈에 세조의 흘러내린 소매 사이로 보이는 염증이 보인다.

근빈 : 박상궁이 말해 주었습니다.
세조 : 한 번 찾아오지도 않느냐?
근빈 :
세조 : 너는 내가 오거나 부르기 전에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근빈 : 그것은....
세조 : 괜찮다.
세조 :
세조 : 다들 내가 어좌에 앉고 싶어 미쳤다고 생각한다.
너도 그리 생각하겠지?
근빈 : 그것이 아니오라...
세조 : 맞다.
근빈 : (보는)
세조 : 무소불위, 만인지상의 자리다.
왕이라는 자리. 좋지 않겠느냐?.....
근빈 : (보는)
세조 : ..허나 세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 때, 조선의 왕은 대전이 아닌 의정부에 있었다.
또한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북방의 야인족들이 이 땅을 위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어차피 상왕은 김종서의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관료임명권을 장악하고, 조정의 모든 요직을 그 자식들과 사위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횡을 일삼고 있었다.

근빈 : (불쑥)제게 이리 모두 설명 하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세조 :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저들이 황표를 달아 올린 이름 아래 필점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다시 그 날이.....

근빈 : (그 날이라는 말에 죽은 박팽년과 박중립이 생각나 날이 선)

다시 그 날이 온다 해도, 그리 하시겠지요.

그래서, 또 수많은 이들이 피를 보아야 하겠지요.

세조 : (근빈을 보는)

세조 : (սսսս하게 웃는)그래,,, 그리 하겠지.

허나, 모를 일이다,,,,,

세상에는, 사소하게 좋은 것들도 있더구나.

네품처럼 말이다.

세조 들고 있던 술잔을 털어 넣는다.

그런 세조를 보는 근빈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린다.

#74. 연못가, 낮

근빈 연못가에 앉아서 연꽃을 보고 있다.

옆에 박상궁 서 있고 그 옆에 또 어린 궁녀 하나가 서서 몸을 배배꼬고 있다.

박상궁 : 가만있지 못해 이것아.

궁녀아이 : (투덜) 아니 근빈마마께서는 한 점째 그리 연꽃만 보시고 계시면
지겹지 않으십니까?

근빈 아이와 박상궁의 말소리에 생각에서 깨어 돌아보면,

박상궁 : 아니 이것이(근빈 보며) 마마 이제 갓 궁의 일을 배운 아이인지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근빈 : (아이를 보고 웃으며) 너는 어찌다 궁에 들어왔느냐?

아이 : (해맑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높~은 상궁마마님께서 저기 청룡사라는 절에
피접오셨다가, 저를 업둥이로 받아 궁에 들이셨다 합니다.
그러니 뭐, 제가 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닌 게지요.
암튼, 지금은 좋지만요. 헤헤.

근빈 : (웃어주는)그렇구나

아이 : 그런데 마마께서는 어떻게 주상전하의 사랑을 받게 되시었어요?

박상궁 : 정말 이것이!

근빈 : (아이가 귀여운)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연꽃보며) 저 연꽃도 처음부터 연꽃으로 나겠다 하지는 않았겠지..

나고 보니 연꽃이고 나고 보니 진창이었겠지?

박상궁 : (보는)

근빈 : 현대,,,, 저 연꽃은 진창 속에서도 참 곱구나.

진창에서 났으면 그저 진창처럼 살아도 될 것을.....

아이 : (머리아픈)마마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빈 : (웃는) 그러하냐?

#75. 교태전, 낮

생각에 빠져 있는 정희

Ins - #48에서 스치듯 보았던, 세조의 팔목에 있던 염증

- #72에서 뭔가 말을 하려던 어의

- #72에서 어의와 내관에게 역정 내던 세조의 병색 깊은 얼굴

뭔가 결심한 듯한 정희

<점프>

김상궁 정희 앞에 앉아 있고.

정희 : 김상궁, 믿을만한 사람 하나만 구해보게.

김상궁 : 예, 마마.

#76. 근빈전, 낮

정희 앉아 있고 그 앞에 근빈 앉아 있다. 둘 사이에 차가 놓여져 있다.

정희 : 차가 좋습니다.

근빈 : 지난 번 명나라에서 들여온 것이라며 전하께서 내려주신 차이웁니다.

정희 : (내려놓았던 찻잔을 다시 한 번 본다.)

근빈 : (아차 싶은)

정희 : 어마마마께서 생전에 전하를 많이 아끼셨어요.

승하하시기 전 두 해를 전하와 함께 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전하께서 아직 잠저에 계실 때니, 벌써 제법 옛 일입니다.

근빈 :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정희 : (근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하께서 근빈을 아끼시니 잘 보필해 주세요.

근빈을 보면 꼭 돌아가신 어마마마 같습니다.

근빈 정희 보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다.

정희 : 차가 좋습니다.

#77. 교태전, 밤

정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상궁이 사내 하나와 함께 앉아 있다.

정희 :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사내 : 믿으시라 하면 믿으시고, 믿지 마시라 하면 아니 믿으시겠습니까?

김상궁 : (당황)이 사람이?

정희 : 후. 그래.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들었나?

사내 : 예

정희 : 철저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르지만, 새어나가서는 안 될 것이야.

사내 : 예, 마마

#78. 대전, 밤

세조 어의와 독대하고 있다.

어의 : 비소 이옵니다.

세조 :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라.

어의 : (멈칫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목소리를 낮추고)

냄새와 맛이 거의 없는 흰 가루이온데, 서역을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쇠에서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황과 함께 사용하면 치명적이지만 이것만 사용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위장에 불편함을 느낄 뿐,

그 징후가 예사로운 위장병과 흡사하여 잘 알기 어렵습니다.

기미상궁이 하는 은수저 검식은 물론 사후에도 종래의 반계법이나

점반법으로는 알아 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조 : (자신의 손등에 있는 피부염증을 보는)

어의 : 실은 황과 함께 혼용되어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온데,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참으로 대범한 자의 소행...

세조 : (말자르며)죽느냐?

어의 : 한 번 복용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습니다.

허나 장기간 복용 하면 그 독이 간과 신장 그리고 여러 내장에 축적되어
(잠시 말을 머뭇하다)죽음에 이르게 된다 알고 있습니다.

세조 : 알았다. 나가봐라.

어의 : 예. 전하.

어의 나가면 사내 하나가 따라 들어온다.

사내 들어오며 어의를 슬쩍 본다. 어의와 눈이 마주친다.

어의 기분이 나쁘지만 서둘러 나간다.

세조 사내가 들어오면 바닥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살짝 까딱한다.

사내 인사를 하고 나간다.

#79. 교태전, 밤

정희 #77에 나왔던 사내와 함께 있다.

사내 : 어의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주상전하를 찾아뵙는 것을 본 연후에 어의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희 : 뭐라? 용체를 돌보는 어의가 밤새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냐?

김상궁 :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새 어의를 임명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르셨다 하옵니다.

정희 : 주상께서?

김상궁 : 예, 마마

#80. 한적한 시골의 작은 집, 밤

어의 책보고 있다. 문풍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어의 긴장하는 표정.

어의 : 게 누구냐?

그때 방문 열리고 들어서는 자객.

획. 칼이 어의의 몸을 베고 지나간다.
자객 어의의 목 아래 맥을 짚어 보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문 밖을 한 번 살핀 다음 급히 담을 넘어 사라진다.

#81. 근빈전. 밤.

보름달 뜬 밤의 맑은 하늘 보인다.
바람이 산들 산들. 근빈전 마당에 핀 붉은 배롱꽃이 달빛을 받아 탐스러워 보인다.
세조 곤룡포가 아닌 편한 옷(미색 혹은 흰색이면 좋을 듯)을 입고 근빈과 술상을 두고
앉아 있다. 취기가 조금 있는 것인지 병색이 있는 세조의 얼굴이 유독 수수하고
청아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의 무릎에 거문고가 놓여져 있다.

세조 : (거문고를 보며) 알고 있나? 아버님께서 악(樂)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나 또한 어릴 때부터 현금을 배웠다.

<자막> 현금 - 거문고

근빈 : 제가 왕가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조 : (희미하게 웃으며)그런가?.....

세조 : (거문고를 만지작 거리며)형님께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다.

아바마마께선 그래서 내가 말을 타거나 검술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좋아하셨지.

근빈 :

세조 : 하지만 어마마마께선 내 현금 소릴 듣는 걸 더 좋아하셨다.

난 어마마마마께 현금 타는 걸 보여 드리는 게 좋았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꽤 재주가 있었거든.(웃는)

근빈 :

세조 : (머쓱) 한 번 들어보겠는가?

세조 거문고를 타기 시작한다.

사뭇 진지한 얼굴로 술대를 권 오른손이 제법 익숙해 보인다.

자신의 왼손을 향해 내리깐 눈이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한다.

카메라 세조의 오른 손을 보면 #21에 나왔던 술대다.

거문고의 저음이 방안의 공기를 울린다.

그리고 근빈의 마음의 금을 울린다.

세조 : (잠시 연주를 멈추고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며) 내일 조 내관을 따라 가거라.

근빈 : (보는)

다시 거문고를 타는 세조를 바라보는 근빈.

#82. 교태전, 밤

정희 세조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궁 : 마마,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전하께서 오늘 밤 근빈전에 드셨다 하옵니다...

정희 :(굳은) 알았다.

김상궁 : 대전내관이 분명 오늘 밤에는 교태전으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

#83. 근빈전, 낮

박상궁 : 마마 어찌되는 것입니까?

근빈 : (해맑게) 주상께서 나를 놓아 주시려나봅니다.

박상궁 : 마마 그게 무슨....

근빈 : 차라리, 잘 된 일이에요. 사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쪽이 마음이 편할 터입니다.

내키지 않으면 박상궁은 궁에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박상궁 : 마마, 그 무슨....

(E) : 마마. 조 내관입시이옵니다.

근빈 : 들어오라 하세요.

#84. 산 길. 낮

따르는 자들이 없이 조내관과 근빈 박상궁 그리고 호위 무사로 보이는 사내 하나만
가고 있다. 여염집 구수처럼 장옷을 입고 가고 있는 것이 멀리 보인다.

근빈과 일행들이 잠시 쉬어 간다.

근빈 : (의아한) 아직 멀었는가?

조내관 : 마마,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근빈 : 어찌 자꾸 산으로 가는 겐가?

조내관 :

근빈 : (보다가)가자.

#85. 묘지, 낮

봉분만 있고, 비석은 없는 무덤 두 개가 보인다.
어리둥절한 근빈과 박상궁, 조내관을 본다.

조내관 : 박중립 대감과 박팽년 대감의 무덤이옵니다.

근빈 : (어리둥절한) 무슨 소리요?

조내관 : 전하께서 은밀히 하라 이르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김상궁 :

근빈 :(묘지보며) 어느 것이 아버지인가?

조내관 : (오른 쪽 묘 가르치며) 이것이옵니다.

근빈 :

근빈 : (스르르 주저앉으며) 아버지...오라버니....

근빈 : (눈물 흐르는)

#86. 근빈전, 밤

근빈 : (조내관에게) 오늘 수고 많았네.

조내관 : 제 소임을 한 것 뿐 이옵니다. 마마

근빈 : 고맙네.

조내관 :(머리 숙이는)

근빈 : 전하께서는....

조내관 : 그것이 탕약을 드시고는 계시오나,
별 차도가 없다고 하옵니다.

근빈 :

#87. 몽타주

- 생각에 빠져 있는 근빈.
- 박상궁에게 뭔가 지시하는 근빈.
- 어둠 속에서 궁녀에게 뭔가 이르는 박상궁
- 문지기에게 돈 같은 것을 쥐어 주는 박상궁
- 주위를 살피며 작은 짐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궁녀

#88. 폐가, 밤

근빈과 땡년 마주 보고 앉아 있고 박상궁 문 앞에 서서 망을 본다.

근빈 : 그만 두겠습니다.

땡년 : (놀란) 무슨 소립니까?

근빈 :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이런 걸 원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땡년 :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근빈 : 왕께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땡년 : 알고 있다니요.

근빈 :

땡년 : 이제 상관없습니다. 왕이 알고 있다면 일을 좀 더 빨리 진척 시키면 될 뿐입니다.

근빈 : 수라간에 있는 그 아이, 내보냈습니다.

땡년 : (버럭)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근빈 : (보면)

땡년 : (버럭) 그새 잊으셨습니까?

왕이 앉아 있는 그 어좌!

내 아버님과 낭자의 아버지님께서 홀린 피로 만들어진 자리오!

근빈 :

땡년 : (버럭) 왕의 품이 그토록 따뜻하시더이까?

근빈 : (이런 자신이 괴로운)...따..뜻하더이다.

땡년 : (보는)

근빈 : (울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그저...모두 그만 두고 싶습니다.

땡년 : (숨소리 거칠어지는)

땡년 : 어째서....어째서!

근빈 : (눈물을 흘려내고)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땡년 : (막아서는) 이대로는 못 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눈에 광기 보이는) Ins #11에서 장대에 걸린 목들

(버럭) 무덤도 쓰지 못한 내 아버님이야.

그 분의 혼백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신단 말이야.

근빈 : 무덤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그리하셨다 합니다.

성 대감님의 무덤 또한 있다하였습니다.

땡년 : 전하라고 했는가? 이.....전하,,전하(분을 참지 못하는)

땡년 : 칼을 빼든다.

근빈 : (놀라는)

땡년 : (광기, 근빈에게 다가가는) 아니되오... 아니되오...

박상궁 놀라서 근빈 앞으로 달려오고 땡년 박상궁을 밀친다.
박상궁 나동그라지고, 땡년 분을 참지 못하고 근빈을 배려한다.
근빈과 박상궁 눈을 질끈 감는다.
획, 땡년이 쓰러지고 그 등에 수리검이 박혀 있다.
근빈과 박상궁이 놀라서 주위를 살피면, 밖에 있던 검은 그림자 급히 사라진다.
근빈 멍해져서 주저앉고 박상궁 근빈을 부축한다.

땡년 : (충혈된 눈으로 근빈을 보는)
근빈 : (다가가는)
땡년 : (피 토하는)욱, 욱, 미안하오.....미안....하오.....
왕이 미운만큼 남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의 그 모진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숨겨두는)
근빈 : (우는)도련님!

#89. 대전, 밤

세조 #80에 나왔던 자객과 함께 앉아 있다.

세조 : 꼭 죽여야 했느냐?
자객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조 : 알았다. 나가봐라.

사내 나가면 세조 앉아 있다. 병색이 조금 나은 듯하다. 세조 자신의 팔뚝을 본다.
팔뚝에 있던 피부염도 조금 나아졌다. 세조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

#90. 교태전, 밤

정희가 #77에서 나왔던 사내와 마주 앉아 있다.
정희의 표정에 놀라움과 분노의 표정이 역력하다.

정희 : 알았다. 수고했다. 그만 나가보거라.
사내 : 예, 마마

사내 나가면 정희 눈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감는다.

#91. 대전, 밤

정희 : 용체는 좀 어떠십니까?

세조 : 보다시피 좋소.

정희 : 어의를 새로 들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조 : 전에 있던 어의가 낙향하고 싶다고 하여 그리했소.

정희 : 낙향한 어의가 어찌 갑자기 주검이 되었습니까?

세조 : (정희 보며)

정희 : 근빈을 내보내십시오.

세조 : 무슨 말이요?

정희 : (보는)

정희 : 어차피 역적의 딸로 죽을 아이였습니다.

세조 :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리하고 싶소?

정희 : (까칠한)제가 죽이고 싶다하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세조 :

정희 : (세조보는)

세조 : 그만 나가보시오.

정희 : 전하는 이 나라의 하늘이십니다.

미천한 땅의 일에 하늘이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세조 : (버럭)그래요. 나는 하늘입니다. 중전께서 만드신 하늘입니다!

계유년 그 때, 차라리 나를 그냥 두지 그러셨습니까?

왜 그 때 내게 갑주를 입혀서 등을 떠 미셨습니까?

정희 : (버럭)전하께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조 : (입술을 깨물고 말이 없는)

#92. 근빈전

(E) 마마 주상전하 드십니다.

<점프>

세조와 근빈 차를 마시고 있다.

세조 : 몸이 많이 나아졌소.....(근빈 바로 쳐다보며) 고맙소.

근빈 :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세조 : (웃는) 부처님께 불공이라도 드렸겠지요.

근빈 : 궁을 나가게 해 주세요.

세조 : (의아한)사가에 잠시 나가 있겠다는 거요?

근빈 : 역적의 딸로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리해주세요.

세조 : 그 몸, 이미 내가 거두었소.

근빈 :

근빈 : 그리해주세요.

세조 : (단호한)아니 되오.

근빈 : (세조 보는)

#93. 연못가, 낮

근빈 연못가에 앉아 있고 아이와 박상궁이 옆에 있다.

근빈 해사한 얼굴로 아이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조가 다가오면 근빈과 아이, 박상궁이 다소곳이 인사를 한다.

세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따뜻해 보인다.

그것을 지나가던 정희가 보고 간다.

#94. 교태전, 낮

정희 서책을 보고 있다. 해썸했던 얼굴도 다시 좋아지고 평온을 찾은 얼굴이다.

#95. 산길, 낮

근빈 박상궁과 어디론가 가고 있다.

<점프>

#85 에서 나왔던 박팽년과 박중립의 무덤이다.

잠시 서 있다가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간다.

무덤이 두 개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직 때가 마르지 않은,

최근에 생긴 것 같은 무덤이다.

성삼문과 맹년의 무덤이다.

근빈 그 앞에서 무상한 눈빛으로 서있다.

옆에 들꽃이 보이자 그 꽃 한 송이를 꺾는다. 무덤가에 올린다.

박상궁 그런 근빈을 애잔하게 바라본다.

#96. 교태전

정희 생각에 잠겨 있다.

정희 : 김상궁 있는가?

김상궁 : 예 마마

김상궁 들어오면

정희 : 기별을 넣어주게

김상궁 : 예, 마마.

#97. 교태전

정희와 사내 앉아 있고 정희 사내에게 뭔가 은밀히 지시하고 있다.

사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98. 경복궁 전경, 근빈 전 새벽

새벽이다. 함박눈이 오고 있다. 눈 쌓인 소나무 가지가 무게에 겨워 늘어져있다.

눈에 쌓인 경복궁의 풍경이 보인다. 따스하고 편안해 보인다.

근빈이 잠들어 있는 근빈전 앞을 지키는 내관이 꾸벅 꾸벅 졸고 있다.

그 때 검은 그림자 하나 천천히 움직인다.

내관 졸다 깨어난다.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내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슬며시 자리를 옮긴다.

이제 그림자는 근빈전 앞에 잠시 서있다.

근빈 스르르 눈을 뜬다. 밖에 있는 그림자를 눈치 채 듯하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근빈은 눈을 뜬 채로 미동을 앓고 누워 있다.

문에 손을 가져가는 그림자가 보이고 곧 문이 스르르 열린다.

근빈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 눈에 눈물이 비친다.

벽에 칼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비친다.

근빈 전 밖에 있는 소나무의 가지 하나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부러진다.

(F.O)

#99. 산길, 무덤가, 낮

(F.I)

- 봄이다. 여기 저기 꽃 피어있는 산 길. 칠삼이 샷갓을 쓰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
- 성삼문과 맹년의 무덤가에 이른다.
칠삼 잠시 보다가 무덤가에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올린다.
- 내려가는 칠삼의 등 뒤로 박팽년과 박중립의 무덤 옆에 있는
새로 생긴 무덤 하나가 보인다.

#100. 연못가, 낮

겨울이다. 세조 연못가에 앉아 연못을 보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연못에는 물이 얼어 연꽃도 없다.
무엇을 찾는 것인지 세조는 연못을 계속 보고 있다.
세조의 얼굴에 병색이 가셨다. 손등에 있던 피부염도 없다.
카메라 옆으로 스르르 옮겨가면
정희가 그런 세조의 모습을 쓸쓸하게 지켜보다가 지나간다.

(F.O)

#101. 광릉, 겨울 낮

#1과 이어진다. 정자각이 보이고, 난간석들이 보이고 난간석에 앉아
날개를 움지락거리고 있는 흰나비의 모습이 보인다.
그 때 저편 세조의 무덤 쪽에서 푸른부전나비 한 마리가 환영같이 날아온다.
천천히 그러나 날개 짓은 힘차고 크게.
푸른부전나비가 다가오면 흰나비가 스르르 날아오르고.
둘이 서로를 애무하듯 원을 그리며 유영하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점점 멀어져 푸른 하늘만 보일 때까지.

<끝>

